

Ива́н Серге́евич Тургéнев

아버지와 아들



세대와 사상의 갈등, 그 시작과 끝

명작의 계절

정치, 사상, 문화, 예술 등 삶의 전반에서 대립을 겪는 세대갈등 이야기.
허무주의와 낭만주의, 그리고 귀족주의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줄거리

아르카디와 바자로프는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바자로프는 아르카디의 아버지이자 낭만주의자인 니콜라이,
그리고 귀족주의자이자 아르카디의 큰아버지 파벨과 수없이
다뤘습니다. 바자로프는 '허무주의'에 강하게 빠져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존경하지 않았고 어떤 사상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여인 오딘초바 앞에서도 사랑의 감정을
절제한 채 멀리 떠납니다. 하지만 그는 오딘초바를 잊지 못하고
결국 쓸쓸하게 죽었고 반면 아르카디는 낭만적인 사랑에
성공합니다. 이 책은 급변했던 러시아 사회의 정치, 사상, 문화,
예술 등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 허무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귀족주의를 말해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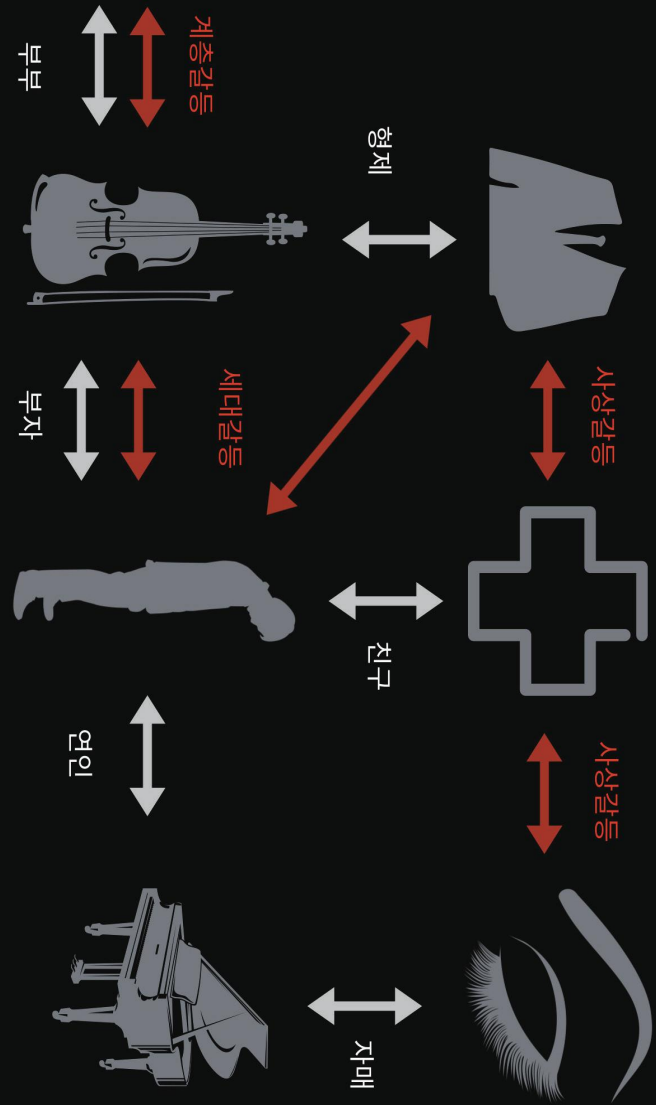
'우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게 합니다.

추천사

; 감성과 이성의 경계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다.
책 한 장, 한 문단, 문장을 읽으며 작가는
진보적인 자신에게 취한 듯한 아르카디의 모습을 보며 공감 또는 웃음 짓는다.
자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휩쓸고 주도하는 파벨과 바자로프에게는 묘한 감정이 들고,
또 그런 바자로프에게 표현하기 어려운 거부감도 가진다.
아들을 신과 같이 떠받드는 바자로프의 아버지애에 대한 연민도 느낀다.
세대 간의 갈등, 사랑의 강렬함, 가치관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하고
'감성은 이성이 통제하는 것일까, 아니면 혹시 그 반대일까'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다.
또한 교훈을 얻고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인물 관계 & 갈등 구조



추천사

; 사랑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는 고백합니다.

상처받을 각오를, 넘어져도 일어설 각오를, 나의 각진 모습을 깎아내어 당신과 합맞추겠다는 각오를, 가족을 사랑합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득 사랑은 무엇이고 대상에 따른 사랑의 방식이 고민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추억하는 것이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를 위해 희생만 한다면 그건 노동에 불과할테죠.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이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대상에 따라 형태가 다른 사랑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니콜라이는 아들 벨 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사랑합니다. 형을 사랑하고,

본인의 삶을 사랑합니다. 아르카디는 카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큰 아버지를 사랑하고, 본인의 삶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바자로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잎새와 켈로의 선율을 마음에 둘 여유가 없는가 봅니다. 아르카디는 할 수 있었지만 바자로프는

할 수 없었던 사랑. 무엇이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농노해방

19세기, 1861년 3월 3일에
알렉산드르 2세가 공포한

농노해방에 관한 법령

*귀족의 권위가 사라져가고
젊은 개혁자들이 나타나며
농노가 해방

아버지와 아들 배경

귀족주의

선택된 소수의 특권층만이
가치있는 것과 접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사상

피벨의 사상

낭만주의

서유럽에서 발생한
미술적, 문학적, 지적 사조(思潮)이다.
18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1800년~1850년 사이에 정점

*자연을 사랑하며 예술을 즐기는 사상

니콜라이의 사상

허무주의

19세기를 대표하는 사상
일체의 사물과 현상의
존재 및 가치를
모두 부정하는 사상

바자르프의 사상

"물론 이것저것 따져보고, 때를 기다리고,
스스로를 값비싸게 생각한다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저것 재지 않는다면
무언가에 자기를 바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당신은 뭘 준비하고 있나요?
어떤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요?
알고 싶어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뭐죠?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요?"

명작의 명대사 : 대사로 알아보는 인물과 사상

파벨

귀족주의

무주의
바자로프

허무주의

귀족주의

“마치 제가 무슨 국가나 사회 같은요!
어쨌든 전혀 흥미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있는
모든 것을 항상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을까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말할 수 없죠?”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내가 요것으로 증명하고 싶은 것은 자존심이 없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면
- 귀족들에게는 이런 감정이 발달되어 있지만-

bien public(공익),
즉 사회라는 건축물의 확고한 기초는 있을 수 없다는 거요.

귀군, 개성은 중요한 거요.

인간의 개성은 반석처럼 단단 해야만 하오.

왜냐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지기 때문이오. 예컨대, 당신이 나의 습성, 나의 옷차림, 나의 말쑥함을
가소롭게 여기 있다는 걸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존심에서, 의무의 감정,
그레요, 바로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오.
나는 시골의 벽촌에 살고 있지만 스스로의 품위를 잃지 않으며
내 안에 있는 인간을 존중하오.

“그럼 당신은, 당신의 말을 빌리자면……
제가 자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단 말인가요……”

“그레요.”

귀족주의

“화내지 않으실 겁니까?”

허무주의

“화내지 않아요.”

귀족주의

“그럼 말하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보처럼, 미칠 듯이……
자, 이제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군요.”

귀족주의

귀족주의 허무주의

허무

만주의
니콜라이

낭만주의

낭만주의

낭만주의

“네가 집으로 오는 걸 축하하는 거야.
정말 봄이 한창이구나.
그렇지만 난 푸시킨과 같은 생각이다.
[예브게니 오네긴]에 나오는 구절 생각하니?”

그대가 찾아오면 난 너무 슬퍼라.
봄이여, 봄이여, 사랑의 계절이여!
얼마나...

성경으로 보는 명작
: 키워드와 성경구절, 해석

낭만주의

만주의

낭만주의

갈등과 욕심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욕심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야고보서 4:1)

야고보서 4:1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보면
자연스레 서로에 대한 기대감과 의존도가 높아져 갈
등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갈등은 주로 자신의 욕심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일어난다.
개인의 욕심만을 바라보다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사라지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각과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세대’와 ‘사상’ 그리고 다시 사랑

여
름,
아
버
지
와
아
들

박예담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다. 책 한 장, 한 문단, 문장을 읽으며 작게는 진보적인 자신에게 취한 듯한 아르카디의 모습을 보며 공감 또는 웃음 짓는다. 자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휩쓸고 주도하는 파벨과 바자로프에게는 묘한 감정이 들고, 또 그런 바자로프에게 표현하기 어려운 거부감도 가진다. 아들을 신과 같이 떠받드는 바자로프의 아버지에 대한 연민도 느낀다. 세대 간의 갈등, 사랑의 강력함, 가치관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하고 ‘감성은 이성이 통제하는 것일까, 아니면 혹시 그 반대일까’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다. 또한 교훈을 얻고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에서 바자로프와 파벨은 각각 좋지 못한 결말, 남들의 박수를 기꺼이 받지 못할 결말을 맞는다. 그에 반해 책의 초반 부분에서 죽대가 없고 주변의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에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니콜라이와 아르카디는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이 결말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한 세대와 주의를 인물화한 색 짙은 캐릭터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굳센 믿음을 지키며 반대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좋으나, 자신만의 것을 지나치게 믿고 치우쳐지면 안된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할 수용력이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에서 결말이 좋은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다. 양 끝에서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는 바자로프, 파벨과 달리 융통성 있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겸손할 수 있었던 사람이 파멸을 맞지 않았다.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겸손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밑에 있는 존재이고 나와 내가 알고 있는 사상은 아주 작고 미미하며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내 생각에 내가 걸려 넘어지면 안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마태복음 말씀처럼 많은 다른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는 리더

의 마음도 이와 같을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

〈아버지와 아들〉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성경에서도 나온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 믿는 사람들의 생각 차이가 이끌어내는 갈등은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일까? 둘다 자기 입장에서 옳은 일이라면 타협과 존중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은 〈아버지와 아들〉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다.

사랑은 매우 강력하다.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다. 사랑 자체를 불신하며 매우 이성적이고 낭만주의, 감성 등을 혐오하는 바자로프조차도 사랑 앞에서 무릎 꿇는다. 바자로프는 사랑을 부정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하는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자신의 눈 앞의 존재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임으로 인해 사랑을 고백한다. 사랑을 외면하려 애써 노력하여도 결국 바자로프의 끝은 좋지 못했다. 바자로프 감정의 결말도 물론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기뻐 받으시려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셨을까. 분명 사랑은 인간에게 없으면 안될 중요한 무언가이다. 사랑을 악용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면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르카디와 같이 사랑을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순수하게 직면하는 것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5:2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고전 11:8-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 창세기 2장 22-24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적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이유, 아직 남녀간의 사랑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나이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진정하고도 순수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어진 목적과 같이 사랑하며 함께 찬양할 때 그 존재 이유와 아름다움이 빛을 바라는 순간 아닐까 싶다. 이삭의 사랑, 야곱의 사랑, 그리고 요셉의 순결함이 바자로프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도 사랑으로 인함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 받을 각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와서 사랑을 주셨을 때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닮고 싶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

해하고 닮는다면 세대 간의 갈등 따위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변외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 파벨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다. 허영심을 직면하는 파벨의 모습은 용기이고 수용이다. 틀렸다고 평가되는 삶도 무의미 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들이 뿌리고 간 영향들은 새로운 세대에까지 이르고 새로운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내가 앞으로 새로운 세대에 주는 나비의 날갯짓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내 가치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

세대를 아우르는 신앙

윤창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명작은 참 우리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좋은 명작이란 많은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질문을 던지고 많은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는 책. 우리는 몸을 키우기 위해 헬스를 한다. 헬스를 하며 자신의 근육을 끊임없이 찢고 회복시키며 성장시킨다. 독서라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더 넓은 사유의 세계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런 무너짐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욱 더 강한 존재가 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호세아 6장 1절,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시편 107편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시편 107편 13절,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시편 107편 14절,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 주시고, 그들을 얽어 맨 사슬을 끊어 주셨다’

〈데미안〉, 〈죄와 벌〉 등등 많은 고전의 주인공들은 생각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우가 많다. ‘아버지와 아들’에서 볼 수 있듯 주인공인 아르카디는 그의 친구 바자로프보다 비교적 캐릭터의 색채가 뚜렷하지 않다. 책의 상당 부분 아르카디는 바자로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을 뿐 그다지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나는 많은 고전의 작가들이 왜 이렇게나 보편적인 인물들을 항상 주인공으로 내세우는지 궁금했다.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마태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마태23장 11절-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대답을 이번 책 '아버지와 아들'을 읽으면서 많이 해결했다. 인생이란 한 편의 문학과도 같다. 우리는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작은 소설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같은 소설을 쓴다는 점에서 문학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왜 이 세상의 주인공은 니콜라이와 아르카디 같은 사람들일까? 왜 바자로프나 파벨 같은 사람을 주인공처럼 보여주며 내용을 끌어가도 정작 주인공은 아르카디와 니콜라이였을까?

'욥기 22장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시편 22장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는 그 이유가 겸손함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인생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겸손함 속에서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월감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불평불만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작가가 보여주는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르카디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흔히 '파벨'이나 '바자로프'를 떠올린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의 양이 제한적이며 이 세상을 평가하거나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바자로프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또는 관점으로 세상을 모두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더 이상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잠 2장 6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마 7장 24절, 그러므로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집을 바위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비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이나 아르카디는 다르다. 절대 자신이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다. 그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남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비단 이런 모습의 지혜로움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소설에서만 보여주지는 않는다. 데미안에서도 주인공이 데미안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 죄와 벌에서도 주인공 라스폴니코프가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 등을 보여준다. 성장을 통해 성숙해지는 순간은 모두 겸손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함을 지켜야한다.

겸손함과 관련해서 내가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이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

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요즘 사회는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갈등을 가지게 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더 적절할까? 아르카디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하는 것은 아닐까?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상대방을 받아들여려고 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주인공이 아르카디가 아닌가 생각한다.

* 덧붙이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만약 아르카디였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나는 3가지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다.

첫번째는 겸손함에 대해서 가르쳐주었을 것 같다. 겸손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나는 겸손함은 감사함으로 말미암는다고 생각한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세

상을 올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나는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등등. 우리의 거짓된 믿음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면, 그 오만함을 제거한다면 감사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저 이 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다. 잠언 3장 6절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감사함이 반복된다면 겸손함이 시작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만함을 감사함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에 감사함을 채우며 오만함을 빼내는 것이다.

두번째는 담대함에 대해서 가르쳐주었을 것 같다. ‘담대하다’는 말과 가장 비슷한 말 중 하나를 찾자면 그것은 ‘자신감’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자신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본다. 처절한 자기 계발을 통한 ‘자신감’ 그리고 세상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자신감’. 첫번째는 진정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고 두번째는 거짓된 자신감이라고 생각한다. 두 자신감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

나는 사람의 마음에는 모두 한 개의 돌탑을 쌓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산을 하다보면 종종 볼 수 있는 돌탑 같은 것 말이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돌탑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한다. 이 돌탑이 ‘자신감’을 의미한다. 이 돌탑은 계속해서 쓰러지지만 쓰러지고 무너질수록 더욱 단단해진다. 진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이 돌탑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며 끊임없이 다시 세우는 사람을 말한다. 돌탑이 무너진만큼, 더 처절하게 무너진만큼 돌탑은 더욱 견고해진다. 때로는 구멍이 나서 바람이 새는 부분도 있겠지만 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려는 시도, 그 시도가 더욱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탑이 견고한만큼 더욱 무게감을 느끼겠지만 더욱 큰, 정말 역풍이 불어와도, 정말 큰 파도가 밀려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탑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사람이라면 끝없이 그 돌탑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한다. 돌탑이 무너진 그 순간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지. 하나님 역시 초라하겠지. 수많은 아들딸들이 그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을테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다시 한 번 아멘이라고 외치며 돌을 주워담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던 않을까? 나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한다.

세번째는 지혜로움에 대해서 가르쳐주었을 것 같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더욱 높은 자

리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참, 나에게서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과연 나는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지혜로움에 오랫동안 고민한 나머지 내가 내리게된 결론은 지혜로움이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도 아직 헛갈리는 결론인 것 같다. 우리는 때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그러하다 내가 영원히 중학생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영원히 고등학생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순간은 영원하지 않다.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저멀리 도망가버리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 역시 행복하지 않으며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나와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소중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리고 나에게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지만 행복이 멀리 있는 듯하다. 아직 나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 듯하다. 지혜로움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다. 영향력의 영역이다. 아무리 지식 넘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는 하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정하는 것이 나는 지혜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존경과 사랑 vs 허무, 당신의 선택은요?

정다운

“아버지와 아들”에서 주인공으로 아르카디와 바자로프가 나온다. 아르카디는 아버지와 세대 차이를 느꼈지만 아버지의 생각을 폄하하지 않았다. 아르카디는 카차라는 여성을 사랑하여 진심이 담긴 사랑을 나누고 카차와 함께 걸어갈 미래를 내다보며 이야기를 끝낸다. 바자로프는 니힐리스트였으며 허무주의의 사상에 강하게 매료되어 있었다. 바자로프는 아르카디의 아버지인 니콜라이와 큰아버지 파벨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바자로프는 낭만주의와 귀족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다. 바자로프는 오랜 시간 어른들과 한집에 살면서도 늘 혼자 과학을 연구했으며 누구와도 잘 대화하지 않았다. 바자로프는 아무와도 공감할 수 없었으며 공감할 동기도 가질 수 없었다. 허무주의의 사상에 집착하

여 아무것도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바자로프의 심정에 아주 큰 동요가 일어나게 된다. 오딘초바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바자로프는 사랑의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오딘초바 앞에서 자신이 이성을 잃고 감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이제껏 숭배해왔던 허무주의의 생각이 흔들렸다. 바자로프는 오딘초바를 떠나서 이후에도 어떤 사상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이도 존경하지 않으며 과학 연구를 이어가는 삶을 살다가 병을 얻어 청년의 때에 죽고 만다. 바자로프는 오딘초바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오딘초바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바자로프의 시신 옆에는 부모님 외에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 친구도, 사랑하는 이도, 아름다운 추억도, 아름다운 가치도 없었으며 과학 책들과 이론서들은 죽음에 잠기는 그에게 아무런 위로도, 힘도, 구원도 되지 못했다. 바자로프는 연구와 공부에 짧은 인생을 모두 쏟아부을 만큼 열정이 가득했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의미 깊은 가치와 기쁨과 평안함이 없었다.

나는 바자로프의 인생보다는 아르카디의 인생을 살고 싶다. 허무주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체의 사물이나 현상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인식되지도 아니하며 또한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적 태도.’ 라고 나온다. 인간은 모두 허무함을 느끼고, 종종 허무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인간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 밑바닥은 허무함이 가득하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돌아섰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람과 함께 있어도, 즐거운 일을 해도, 멋있는 곳에 살아도 인간은 근본적인 허무함을 해결할 수 없다. 바자로프도 한 인간으로서 허무함을 느꼈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허무함에 잠식되었다.

허무주의의 사고를 하면 아무것도 존경할 수가 없다. 하지만 존경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누군가를 존경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함으로써 그의 생각을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세대가 가진 생각과 우리 세대가 가진 생각이 다를 때가 많다. 서로의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맞는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부모님의 세대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생각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 존중하면서 서로가 최대한 양보하며 의견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하며 싸우는 것보다 의견을 조율하며 타협할 때에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고 오랜 시간 부모님의 세대와 자식의 세대 간의 사이가 좋으며 가정이 평안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의 세대를 존중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삶 전체를 이해하기는 힘들어도 한 분의 인생으로 살아오신 것을 존중하면 된다. 내 인생이 중요한 만큼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된다. 부모님이 자식의 생각에 책을 잡을 때가 있더라도 부모님의 모든 모습을 부정하면 존중이 힘들어진다. 부모님의 모습 중에 존경할 부분은 존경하는 것이 좋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사람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이 사랑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사회 이웃과 부모님도 포함된다. 요한복음 13장 34~3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사랑 가운데 소통하고 싶어서 당신의 형상과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의 존재 이유에도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외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신명기, 잠언에도 나온다. 부모님의 의견보다 좋은 의견이 있다면 반복하고 반복해서 부모님을 설득시켜주어야 한다.

사랑은 존경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허다한 죄를 덮어 준다. 아르카디의 큰아버지 파벨은 바자로프에게 총을 겨누는 결투를 신청할 만큼 바자로프를 미워했고 바자로프도 파벨과의 세대 차이 때문에 의견 차이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파벨이 바자로프와의 총싸움에서 지고 난 후에 바자로프 앞에 더 이상 나서지 않고, 바자로프는 파벨이 총상을 입었을 때 치료해주며 파벨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 더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둘의 갈등은 잦아들 수 있었다.

우리는 두 세대 간 다툼과 상처가 생기기 전에 먼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말로써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비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쉽지 않고, 한 두 번 한다고 해서 언제나 쉬운 것도 아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만 번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기 위해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하기 위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의 시작은 대화와 소통이다. 바자로프는 윗세대와 많은 대화가 필요한 인물이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천국과 같이 긍정적으로 만든다. 나는 전에 아빠를 지독하게 미워했었다. 아빠와 나는 서로의 말과 행동에 자주 상처를 받아왔고, 아빠와 나의 세대가 달라서 선호하는 것이 다를 때 서로의 의견만 주장하다 보니 갈등이 깊어졌다. 나는 아빠의 언행이 싫은 만큼 충분히 미워했고, 애써 심각하게 미워하기도 했다. 난 미워할 때 부정적인 감정에 둘러싸여서 아빠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웠다. 마음에 여유도 없었고 계속해서 증오의 독기를 뿜어내려고 애쓰기만 하니 괴롭도록 감정이 많이 소모되었다. 우리는 서로 대화하지 않고 4년을 지냈다. 4년의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이 추스러지고, 상처가 아주 조금씩 아물고, 나는 아빠의 생각과 살아온 환경과 배경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1년이 더 지난 뒤에는 아빠와 싸우지 않았던 어릴 때처럼 다시 대화를 하게 되었다. 아빠가 이해되지 않았던 때에는 내 마음에 거리낌이 생겨서 미워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미워했던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아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다시 사랑하고 나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또 아빠의 도움을 아낌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도 떳떳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었지만 아빠와의 관계가 좋게 회복된 후에는 아빠의 딸로서 아빠에게 육체적으로 필

요한 도움과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더욱 평안하고 풍성해지게 되었다.

이렇듯 미워하는 것은 미움을 받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 미워하게 된 이유가 세대 간의 갈등이든, 사소한 의견 차이이든 미움은 고통과 불안을 가져온다. 하지만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가족, 친구들 등의 공동체 안에 사랑을 채운다. 또 내 마음을 어렵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에 전에 느꼈던 미움보다도 금방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키워진다.

우리는 불안과 불쾌함으로 뒤덮여 있는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의 행동을 선한 쪽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감정 소모가 낭비되는 미움을 내 마음 속에 허락하기 전에 타인의 잘못을 꼬집어 보는 내 눈에 잘못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누가복음 6장 41~4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내 눈 속의 티를 먼저 보고 알아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
하기 위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한다.

사랑의 기본자세와 자격

이혜민

사랑과 사랑의 대상. 성숙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에게
나 사랑은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는 고백합니다. 상
처받을 각오를, 넘어져도 일어설 각오를, 나의 각진 모습을 깎아내어 당신
과 합 맞추겠다는 각오를.

가족을 사랑합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득
사랑은 무엇이고 대상에 따른 사랑의 방식이 고민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
간을 추억하는 것이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를 위해 희생만 한다면
그건 노동에 불과할 테죠.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이고 우리는 누구를 사랑
하고 있습니까. 대상에 따라 형태가 다른 사랑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말입

니다. 니콜라이는 자식 뿐 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사랑합니다. 형을 사랑하고, 본인의 삶을 사랑합니다. 아르카디는 카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큰 아버지를 사랑하고, 본인의 삶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바자로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잎새와 첼로의 선율을 마음에 둘 여유가 없는가 봅니다. 아르카디는 할 수 있었지만 바자로프는 할 수 없었던 사랑. 무엇이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사랑은 각오. 사랑은 환경. 사랑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각오하며 책임져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어렵네요. 내게 던지는 질문과 이야기는 수없이 많으나 삶을 더 살아보아야 알게 될 것이 가득해요. 그런 와중 사랑은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오이자 도전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용기, 그 끈기가 진정한 사랑을 만듭니다. 바자로프는 겁쟁이 같습니다. 흔히들 촌데레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의 태도가 있습니다. 티 내지 않지만 뒤에서 챙겨주고 신경 쓰는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웬지 바자로프와 어울리는 표현이었습니다. 확실하게 행동하고 말하면 책임져야 하니 투박하게 표현하고 도망가는 것 같은 의미로 닮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닮았다는 것을 앞에도 그녀를 홀로 두고 떠난 것은 책임감 없는 행동이었으며 페네치카에게 진한 입맞춤을 한 것은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랑은 용기가 필요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책임지며 살아갑니다. 내게 내어준 용기는 감동이자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신중한 선택으로 나를 택한 것은 우리의 관계가, 현재 받고 있는 사랑이 귀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귀하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용기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아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주지, 생일, 출신학교와 취미, 특기, 직업 등과 같은 프로필을 아는 것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아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안다는 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사랑이라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은 관계에 붙여진 이름에 따라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친구와 연인, 가족과 동료, 스승과 제자. 앞에 대한 의도는 분명 관계에 부여된 이름에 걸맞아야 합니다.

성숙한 사랑에 대해 고민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귀한 인연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장난 같은 사랑이 아닌 나를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자로프의 충동적인 입맞춤은 한없이 가볍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카차를 향한 아르카디의 눈빛에는 진중함이 있습니다. 무모하지 못한 바자로프는 늘 합리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사랑에서 마저 그러한 신념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희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던져 희생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한 행위죠. 나보다 상대를 사랑할 때 가능한 겸손. 완벽한 사랑은 없을 테죠. 부

족한 사람 둘이 하는 사랑은 온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성숙한 사랑은 가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와 눈을 맞춰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어 나의 모난 것을 깎아내릴 희생이 각오 된 사람들 말이죠.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어떤 사랑을 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박초연

우리는 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일까? 왜 굳이 사랑하면서까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일까, 왜 우리는 대부분 가족을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은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또한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없다. 자식이 잘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못났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이며 같은 논리로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못났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 부모니까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영향을 주어 자식 또한 부모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상호작용적 관계를 맺기 마련이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부모 자식 관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소통과 솔직함과 숨김없는 것이다. 하지만 바자로프와 부모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고 서로를 위한다며 자신의 감정들을 숨겼다. 결국 서로에게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되어주지 못한 채 이별을 한 이들을 보며 한쪽에서만 강렬하게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사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짝사랑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상도 못할 만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의 자녀 사랑은 아무도 막지 못할 정도 클 것이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더욱 크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사랑 속에 자라면서 무뎠지는 것뿐이다.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면서 늙어가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이유 없이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왜 갈등이 생기는 걸까 사랑하면서 왜 이해해주지 못하고 존중해주지 못하며 존경해주지 못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가족, 친구, 연인, 직장동료 등 많은 사람과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을 만든다. 어떤 경우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 갈등을 만든

후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끈끈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갈등은 서로 가까울수록, 기대감과 친밀감이 클수록,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주 일어난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가족과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갈등은 주로 자신의 욕심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일어난다. 개인의 욕심만을 바라보다가 서로에 관한 관심과 배려가 사라지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각과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갈등은 더욱 심화한다. 우리는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더 괜찮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래서 또 어쩌면 살기 위해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는 것만이 과연 살기 위한 방법일까?

사실 생각해보면 욕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욕심이 선순환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삶을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그 덕에 우리는 이렇게 편리한 삶을 이것저것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처럼 욕심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욕심은 우리에게 좋을 것 하나 없다고 분명히 말 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욕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싸움과 분쟁이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다. 이에 우리는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실 나의 욕심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났다고 무릎 꿇고 이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뭐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같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 좋겠지만 이게 냉정한 현실이기에 서로 경쟁하고 욕심을 부리며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다 같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듣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다름과 허무

정한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것이 변화하게 된다. 생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한다. 무엇 하나 먼저 변했다고 할 수 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세대에 따른 차이와 다름을 그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각자의 인생이기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모든 것을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유행으로 예를 들어보자. 유행은 1년에도 몇 번씩 바뀐다. 옛날에 유행했던 것이 다시 한번 유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좋아보이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도 유행에 갇혀 다른 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이 살아오면서 무의식 중에 박혀버린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그저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 사람의 생각은 그 무엇도 '틀리다'고 정의할 수 있는건 없고 그 무엇도 '맞다'고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아르카디는 니힐리스트인 바자로프를 존경했고 사상적 스승으로 따르기 까지 하였지만 바자로프와 같이 모든 전통과 원칙을 배격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친구의 결말을 볼 필요가 있다. 바자로프는 결국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서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였다. 그와 반대로 아르카디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우리는 무엇이든 단 한가지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는 뜻이 아닐까.

바자로프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자신을 니힐리스트라고 하며 허무주의의 삶을 살아가던 바자로프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 것이다.

“그럼 당신은, 당신의 말을 빌리자면 제가 자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단 말인가요 ”

"그래요."

바자로프가 일어나서 창 쪽으로 걸어갔다.

"그래서 당신은 이 자제심의 원인을 알고 싶다는 말이지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싶다는 말이지요?"

"그래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놀라움을 느끼면서 그녀가 되뇌었다.

"화내지 않으실 겁니까?"

"화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는다고요" 바자로프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섰다. "그럼 말하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보처럼, 미칠 듯이 자, 이제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군요."

오딘초바는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 바자로프는 창문 유리에 이마를 꼭 대고, 숨을 헐떡이면서 눈에 띄게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젊은이의 수줍은 떨림도 아니고, 첫 고백의 달콤한 공포가 온몸을 사로잡은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슴속에서 몸부림치는 욕망이었다. 증오와 닮은, 아마도 증오와 비슷한 강하고 고통스런 욕망이었다 p.162~163

하지만 나는 이 글에서 허무주의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건 아니다. '허무'에 대해,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느꼈을 그 허무라는 감정에 대해 얘기해보려한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시94:11)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무함을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과연 허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일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 중 하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무언가에 빠져버린다는 것. 즉,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경지로 넘어간다는 것은 대부분 사탄이 준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는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허무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 우리는 그 감정에 빠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부정하게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가치를 깎아 내린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쓸모없다 생각하게 된다.

자신이 달성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을 때 혹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낀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낮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을 달성해나가는 연습을 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서 자꾸만 높은 목표를 세우기 때문이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그 목표에 대해 훨씬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쏟은 사람과 비교하며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쏟지않은 채 그 경지에 도달하고 싶어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패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 허무한 감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과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목표를 달리 설정하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위한 노력도 열정도 의지도 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그 결과에는 우리의 감정이 뒷받침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허무한 감정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목표를 없어질 것이다. 목표없는 삶은 과연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사탄이 준 것들은 우리를 무한굴레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한다.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한다,